

# “이 기분, 한국시리즈 우승이 부러우라”



세한기업 재규어스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세한기업 재규어스와 무등산생태요양 병원이 무등기 정상에 올랐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 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대망의 결승전이 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렸다. 무등리그의 세한기업 재규어스는 허버베이스볼클럽을 7-4로 꺾고 무등기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무등산생태요양 병원은 오렌지클래쉬를 15-2로 꺾고 광일리그 패권을 차지했다.

1회초 선취점을 내준 세한기업 재규어스가 1회말 국범석의 3루타에 이어 정경국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서승태와

박상신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3-1이 됐다.

4회 허버베이스볼의 홍서후가 2사 1-2 루 찬스에서 펜스 맞는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승부를 3-3 원점으로 돌렸지만 곧바로 세한기업의 추격이 이어졌다.

4회말 공격에서 폭투로 5-4의 리드를 잡은 세한기업은 6회 나온 오창욱의 2타점 적시타로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광일리그의 결승전은 탄탄한 수비로 무장한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1회 선취점을 뽑아낸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이 이어진 수비에서 내야진의 끝

## 광주일보 무등기 사회인 야구 폐막

### 무등리그-세한기업, 광일리그-무등산생태요양병원 우승 16개 팀 두달여 대장정 마무리...MVP, 오창욱·장병용

광한 수비로 삼자범퇴를 만들었다. 2회 상대 2루수의 실책을 발판삼아 2점을 보낸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4회와 5회 각각 5점씩을 더하며 일찌감치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오렌지클래쉬는 2회 선두타자 김재경의

2루타로 무사 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주루사가 나오는 등 초반 기싸움에서 밀렸다. 각 리그의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우승 메달과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우승메달 및 상

금 30만원, 공동 3위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수여됐다. 또 각 리그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 우수선수, 최우수심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한편 지난 9월13일 막이 오른 이번 '가을잔치'는 무등리그(16개팀)와 광일리그(16개팀)로 나눠 OB맥주공장 야구장, 동성고 야구장, 무등중 야구장 등지에서 치러졌다. 광주시야구협회가 주관했으며 광주시생활체육회·전남도생활체육회·KIA 타이거즈가 후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무등리그
  - 허버베이스볼클럽 1002010-4
  - 세한기업재규어스 300121X-7
  - ▲승리투수:홍길준
- ◇광일리그
  - 무등산생태요양병원 2215500-15
  - 오렌지클래쉬 0001010-2
  - ▲승리투수:이대수
  - ▲훈린:박경남 (5회 1점·그라운드홈런·무등산생태요양병원)

## “우승에 대한 집념으로 이룬 성과”

### 세한기업재규어스 단장 김치균

“이길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준결승에서 아쉬운 패배를 맛봤던 세한기업재규어스는 1년간 고된 준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최강의 실력을 겸비했지만 결승전 집념은 남달랐다.

김치균(37) 단장은 “1년을 무등기에 맞춰 훈련에 참여한 만큼 모든 선수들이 우승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었다. 지난 대회 준결승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설욕한 만큼 우승의 짜릿함이 남다르다. 함께 달려온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손에 땀을 쥐는 박빙의 승부였다’고 전했다. 그는 “선두타자가 출루한 뒤 안타가 터지지 않아 흐름을 잡지 못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며 “잘 던지던 선발 홍길준 선수가 갑자기 제구가 흔들렸다. 중지가 벗겨지는 부상에도 팀을 위해 끝까지 공을 던지는 모습은 선수들에게 강한 의지를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까지 써가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세한기업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가족들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강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

## “입문 10년만에 큰 상...감격적”

### MVP 오창욱

무등리그의 MVP는 세한기업 재규어스의 선중인 오창욱(37)에게 돌아갔다. 오씨는 2001년 친구인 정경국 감독과 팀을 결성한 인물이다. 2004년 정식으로 사회인 야구무대에 뛰어들지 10년, 모처럼 받는 큰 상이다.

오씨는 “10년 넘게 팀에서 있었는데 큰 상을 받게 됐다”며 “팀에 좋은 타자들이 많아서 하위 타순에 주로 배치돼서 역할을 했다. 팀에 좌타자가 거의 없어서 밀어치는데 주력하면서 좌타자 역할을 많이 했다. 열심히 뛰려고 했는데 그런 걸 좋게 봐준 것 같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하

라는 의미로 준상인 것 같다”고 웃었다.

오씨는 결승전의 히어로이기도 했다. 4-3 박빙의 리드가 이어지던 6회 좌측 깊숙한 타구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사실상 승리를 결정지었다.

오씨는 “팀에서 만행인데 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가르쳐 주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가면서 오랫동안 이 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 운영 총괄 이영현 사무국장

### “선수들 높은 경기력 무사고 마무리 뿌듯”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줘 뿌듯합니다.”

이번 대회 운영을 총괄한 이영현(45) 사무국장은 “참가선수들의 기량이 프로선수 못지 않다”며 “사회인 야구인들의 축제가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돼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는 참가팀 가족이 많이 찾아와 응원을 펼쳤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대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며 “최근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선수들이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 부상 없이 재미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선수복지와 편의시설 만큼이나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야구장과 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말에 야구 경기를 나가면서 가족 눈치를 보는 선수들이 많다”면서 “현재 사회인 야구장은 가족들이 함께 찾아오기에는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선수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사회인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지난해 준우승 아쉬움 털어 짜릿”

### 무등산생태요양병원 감독 김선도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는 짜릿한 우승입니다.”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된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승리였다. 소문난 실력의 이들이지만 차분하게 최선을 다한 경기를 하자고 다짐하며 마지막 무대에 올랐다.

승리를 이끈 김선도(38) 감독은 “경기 전 선수들에게 수비와 주루에 대해 강조했다. 집중력 있게 수비를 하고 뛰자고 얘기를 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준우승에 머물러서 아쉬웠는데 기분

이 좋다. 우승까지 오느라 고생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이 짚는 팀의 장점은 ‘찰떡 호흡’이다. 김 감독은 “팀원들이 10~20년을 알아온 사이다. 즐겁게 야구를 하고, 서로 돕고 가족들끼리 야유회도 가는 등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인간적으로 맺어진 사이라 단합도 잘되고 야구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다”고 팀의 장점을 말했다.

또 “지금처럼 가족처럼 부상 없이 건강하게 야구를 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다. 우리 지역 사회인 야구의 발전에 앞장서는 팀이 되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 “동료들과 흘린 땀, 결과 좋아 기뻐”

### MVP 장병용

“팀에 더 헌신하라는 의미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어머니’라고 불리는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장병용(34)씨는 우승의 공로를 동료에게 돌렸다. 장씨는 팀원들의 추천으로 MVP가 됐다.

그는 “내가 팀에 한 역할은 팀원들을 독려하고 응원한 것이다. 우승은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린 결과”라고 말했다.

장씨는 “팀에는 정쟁한 실력자들이 많은 탓에 매번 경기에 출전하기가 힘들다”며 “주전으로 뭘 때도 있고 주전자를 들고 뛰어야 할 때도 있지만



팀에 공헌을 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고 전했다.

겸손한 소감과 달리 경기장에서 그는 ‘어머니’라는 별명에 걸맞게 위기 때마다 1루에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는 “큰 부상 없이 우승까지 안겨준 동료에게 정말 감사하다. 팀의 에이스로 MVP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덕아웃에서도 든든하게 팀을 지원할 수 있는 진짜 MVP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